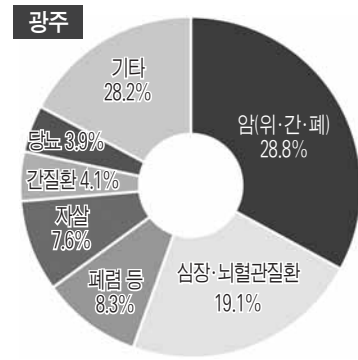


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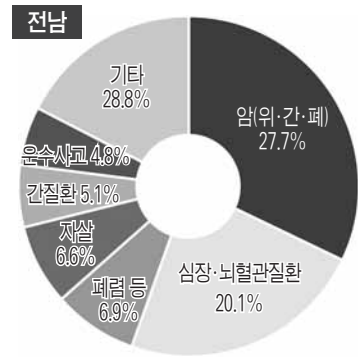
전남 간암·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

질병 대처능력 떨어져 10만명당 사망도 최고 광주 사망률은 낮아... 암·뇌혈관·심장질환 順

■지역 주요 사망 원인



(단위: 표준인구 10만명당 비율, 자료: 통계청)



이 중 간암(표준인구 10만명당 23.8명)과 운수사고(21.0명)에 의한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암(25.9명), 당뇨병(18.9명), 만성하기도 질환(13.8명), 간 질환(14.6명)으로 인한 사망률도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고령화로 인해 질병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조사사망률(454.9명)과 표준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연령표준화사망률(411.1명)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낮았다.

사망 원인은 악성 신장암(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순으로 많았다. 이들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전체 사망자의 47.4%를 차지했다. 이어 고의적 자해(6.2%), 당뇨병(4.2%), 폐렴(3.3%), 만성 기도 질환(2.7%)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10~30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순위로 40대 이상은 암이 가장 많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제기후·환경산업전시회 관심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기후·환경산업전시회'에 참가한 강운태 광주시장(가운데)이 음식물 쓰레기 발효 건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 기상청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는 5개국, 143개 업체가 참여해 오는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김진수기자 jeans@

농민-도시 근로자 소득격차 역대 최고

농가, 도시기구의 59%

농민과 도시 근로자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59.1%다. 이 비중이 6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역대 처음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질렀다. 1985년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12.8%에 달했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1995년 95.7%, 2000년 80.5%, 2005년 78.2%로 떨어지더니 60% 선마저 무너졌다.

소득 격차가 심해진 것은 도시가구 소득은 계속 늘어났으나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도 한몫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5년 3902만원에서 지난해 5098만원으로 6년새 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3050만원에서 3015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농가의 가계 상태는 적자경영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농가의 소득 대비 가계비(농가경제수지)는 1995년 1.47에서 지난해 1.08까지 하락했다.

/연합뉴스

농가 경제의 악화는 농산물 가격은 별로 오르지 않은 데 반해 원가 부담은 많이 늘어난 탓이다. 대표적인 작물인 쌀의 판매가격(2등급 80kg 기준)은 2000년 15만7000원에서 지난해 16만원으로 10여년 동안 거의 변함없다.

같은 기간 요소비율 가격이 5300원(20kg 기준)에서 1만1천원으로 급등하는 등 농가재 가격은 크게 올랐다. 인건비도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업의 대형화, 기업화만 외칠 게 아니라 중소농가 소득의 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980년대 중반까지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을 앞질렀다. 1985년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112.8%에 달했으나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1995년 95.7%, 2000년 80.5%, 2005년 78.2%로 떨어지더니 60% 선마저 무너졌다.

소득 격차가 심해진 것은 도시가구 소득은 계속 늘어났으나 농가 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도 한몫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5년 3902만원에서 지난해 5098만원으로 6년새 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농가 소득은 3050만원에서 3015만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농가의 가계 상태는 적자경영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농가의 소득 대비 가계비(농가경제수지)는 1995년 1.47에서 지난해 1.08까지 하락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1등급 4만9000원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4만 9000원으로 결정해 지난해보다 2000원 올렸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은 17일부터 시작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며 우선지급금은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고 내년 1월 매입가격을 확정해 최종 정산한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 12개월로 연장

정부 합동 복지 태스크포스(TF)는 13일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인구의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을 12개월로 5개월 연장하고, 사회적기업 구직등록 대상에 대한 재학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7개월로 제한돼 연금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근로소득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광주시·전남도 특별단속

광주시와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광주시는 17일부터 시·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호남경역감사소, 소비자단체 관계자 20여명이 5개 반으로 나눠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정육점, 할어유통업체 등을 주로 단속한다.

전남도도 오는 26일까지 시·군·관할 부서 공무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2개 반, 1051명을 투입해 제주 관련 품목과 과일류, 참깨, 꽃감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태풍피해 항구대책 마련 나선다

TF팀 구성... 'C'자형 방풍림 조성 등 제시

전남도가 반복되는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구(恒久)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13일 최근 블라벤과 덴빈 등 연이은 태풍 피해를 계기로 재난피해복구를 항구복구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태풍 피해 특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팀에는 건설방재국을 비롯한 농림식품국, 해양수산국, 행정지원국, 기획조정실, 농업기술원, 전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분야별 항구대책으로 농림분야는 ▲낙과와 배수현상 방지를 위한 'C'자형 방풍림 조성 ▲해안지역 조성종 확대 ▲산사태 예방 5개년 계획수립 및 산중턱 소규모 연못 설치 ▲가축 밀식방지 및 동물복지형 축산 등이 제시됐다.

해양수산 분야는 ▲100년 주기 항만·어항시설 설계 ▲도서남도 국제위성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항만시설 설계에서 사공까지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부잔교와 도교부분 파일 시공 ▲부잔교와 도교 분리시공 등이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 등 주요 제도 개선 방안도 정부 등에 건의했다.

광역 단위 지자체 가운데 60% 이상 시군이 피해를 볼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업업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제고, 가구당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지원 보상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도서지역 복구비 할증 적용, 시설물 및 전복가두리

양식장 복구비 산정기준 개정 등이다.

한편 이번 태풍으로 인한 전남지역 피해액은 4327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피해액 412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국 피해액(7221억원)의 59.9%를 차지한다. 배양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백 배수나 열해, 낙과, 어패류 폐사 등 생물(生物) 피해는 이번 집중계에서 빠진 것으로 농민들의 체감 피해액은 1조원이 넘는다"며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wangju.co.kr

목포·여수·화순·구례·함평 특별재난지역 추가

행정안전부는 태풍 '덴빈'과 '블라벤'으로 피해를 본 목포시·여수시·화순군·구례군·함평군, 전북 김제시, 총북 괴산군, 충남 부여군 등 8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은 광주 남구와 나주시 등 기존 16곳을 포함 모두 21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율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해당 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한결 덜게 된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 수돗물 2017년부터 바로 마셔요"

광주에서는 오는 2017년부터 수돗물을 바로 마실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0~2017년까지 사업비 2372억 원을 투입, 동북수원지를 1급수로 만들고 노후 상수도관도 전면 정비하는 '수돗물 바로 마시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동북수원지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상수원 상류 53개 마을에 오수정화처리 시설을 설치 중이다. 또 노후 시설인 용연정수장 여과지 개량공사와 각화정수장 막여과 사업 등 정수장 시설 개량 사업도 진행 중이다.

특히 상수도관 정비에 나서 총연장 5248km에 이르는 상수도관 전체를 150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최적관망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진행중이며, 261km의 노후 수도관도 교체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 ~ 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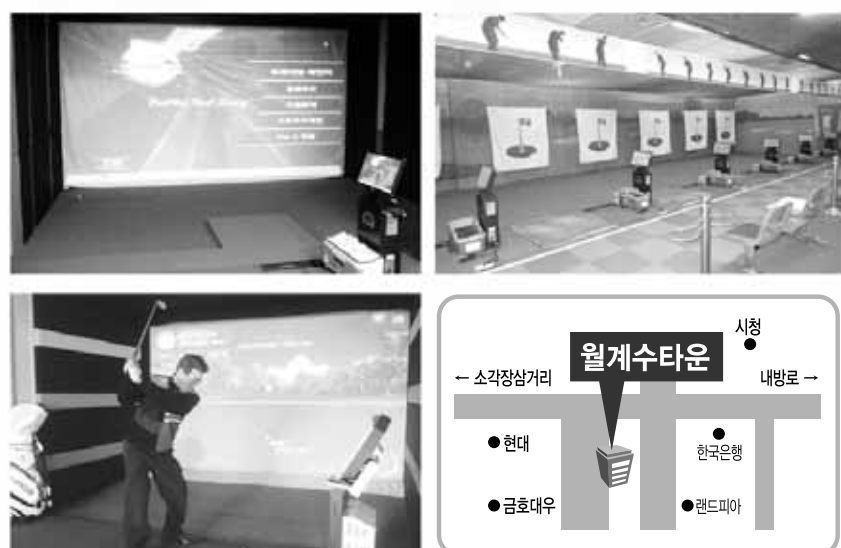
현제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삼성카드론 9,0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다들유저축 8,000,000원	1년이자비용 14,45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년이자비용 6,75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국민은행 3,2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씨티은행 4,5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총부채 150,000,000원
	1년이자비용 7,80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 2011-3430067-25-5-00028 주소 :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실내골프연습장

SKY 골프 Club 연습장

최첨단 스윙분석기·타석스크린 전타석 설치!!
방향, 비거리, 스윙동영상을 동시에!!



새벽반(6:00) 환영

- 드라이빙레인지 모드
- 스윙분석
- 훈련모드(퍼팅, 어프로치 연습)
- PAR3 게임모드
- 스트로크 게임모드

연습장 이용시간

평일	06:00 ~ 23:00
토요일	10:00 ~ 22:00
일요일·공휴일	12:00 ~ 20:00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쉽니다.

SKY 골프 Club 연습장 Tel. 372-3900 H·P. 010-3635-3784
서구 치평동 1187-2 월계수타운 지하1층